

양식데이터산업 대전환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포럼' 출범 전북도 수산업 첨단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

노동집약적 양식산업에서 미래산업인 양식데이터산업으로 대전환을 위한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포럼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쿠아디지털 트윈 연구협의회 최상규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창립총회는 도내 원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아쿠아 디지털 트윈 연구협의회가 주관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포함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박병선 군산대학교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포럼 창립총회 배경과 아쿠아 디지털 트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의를 끝으로 총회가 마무리됐다.

아쿠아 디지털 트윈은 '실제 양식현장과 똑같은 가상현실을 컴퓨터 속에 만들어 양식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테스트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성장 조건을 도출해 양식현장에 실시간 반영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적용범위는 내수면과 바다양식을 포함하며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가공산업, 인력양성 등의 사업내용을 담게 된다.

아쿠아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표준양식장의 모델개발과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양식 소득이 기대되며, 축적되는 양식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식서비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양식장과 양식데이터 수출로 우리 수산업의 4차 산업화를 도모하고 세계 양식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식 출범한 포럼은 아쿠아 디지털 트윈 분야 관련 단체로 구성되는 포럼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문과 산업, 연구와 정책을 논의하고, 구성원 간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집약적, 영세성 등으로 한국의 수산업은 성장한계에 도달하였다"면서 "수산업의 재도약과 미래 산업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모여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기술, 정책, 절차, 제도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 최대의 양식 생산량을 자랑하는 전라북도가 미래산업인 양식데이터산업으로 수산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서 "아쿠아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첨단 스마트 양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 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노령화 및 노동집약적이고, 가족경영 양식산업에서 친환경 스마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전북도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사업(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맡겨 수립 중이다. /김진성 기자

“조국에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임명 배경을 설명하기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장관 후보자 6명 임명 재가

임명 앞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 “국민께 넓은 이해 당부 원칙 지키는 것이 더 중요”... 사법·교육분야 개혁 강조

문 대통령은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 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취지와 관련해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볼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남은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데 대해선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공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일치와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가 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 추진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광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고창 특교세 36억 확보

대안정치 유성업 대표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업 의원(정읍·고창)은 전반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후반기에도 어김없이 지역 내 필요예산을 잇따라 확보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유 의원은 9일 정읍·고창지역에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8억원, 이평면 신송 소규모 교량 교체사업 8억원 ▲고창군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10억원, 대산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 10억원 등 총 36억원이다.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및 고창군 무장읍성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읍시 이평면 신송 소규모 교량 교체 공사 및 고창군 대산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 또한 사고발생 위험으로 출입통제 되었던 주민 불편 해소와 매년 반복되는 상습 가뭄 피해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등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큰 도움이 될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임실·순창 특교세 확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 50억원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9일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남원시 관련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의 현안사업으로 ▲근원대기록관 꿈틀 체험시설 구축에 4억원 ▲남원관광지 밀집 공간 생활형 주차장 조성에 5억원이 확보됐다. 지역 문화 수요 충족과 불편 해소, 관광객 유치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며, 재난안전사업으로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설치에 4억원 ▲남원대교 내진보강공사 5억원을 확보해 전광판 설치로 실시간 기상상황 송출과 각종 재난·재해 정보 신속 전파, 주민행동요령 표출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국회의원은 “이번 특교세는 각 지자체, 행안부 관계자와 꼼꼼하게 챙겨서 얻은 성과”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안정적인 기반시설, 동서남북 교통의 요충지, 저렴한 분양가, 파격적인 투자지원, 우수한입지여건 남원시가 지원합니다. 남원시와 기업과 함께,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에서 힘찬 미래를 준비하세요!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

안정적인 기반시설 3가지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장, 전력시설

동서남북 교통의 요충지
10km내
오수IC, 북남원IC, 시도 10호선 인접

파격적인 현금지원!
최대 100억원 투자지원, 고용지원

저렴한 분양가
분양가 325천원/3.3㎡
임대료 분양가의 1.5%(연간)

남원시